

Latent Scape: Video, Photography, & Painting

잠재풍경: 영상과 사진 그리고 회화

임상빈

www.sangbinim.com

■ **문제의식:**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됨의 가치'를 찾고자 고군분투해왔다. 물론 '거시적'으로는 매한가지다. 예컨대, 그 옛날 현자들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 마치 자연의 물리법칙인 양, 예나 지금이나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지, 아직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한편으로, '미시적'으로는 변화무쌍하다. 예컨대, 보편적인 하나의 '전략'을 전제하고도 때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체적인 '전술'을 다변화해야 급변하는 무한 생존경쟁에서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다.

결국,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전술'을 기대한다. 물론 전자에 따르면, 모름지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람됨의 가치'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후자에 따르면, 그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은 사람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 다르다. 기왕이면 때에 따라 개인적으로 혹은 시대적으로 더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길 바랄 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총체적으로 '사람됨의 가치'를 다시금 점검하고 정립하며 추구해야 하는 시기이다. 돌이켜보면 19세기 초, 기술적인 '사진'의 등장은 '회화'의 미래를 다변화했다. 이를테면 '아, '사진'이야말로 사물, 구상, 재현 전문가네. 그렇다면 난 개념, 추상, 표현 전문가가 되어야지'라는 식의 각성을 한 이들이 생겨났다. 마찬가지로 21세기 초, 이지적인 '기계'의 등장은 이에 대한 '사람'의 신속하고 기발한 대응을 요구한다. 이를테면 '아, '기계'야말로 정보, 기억, 연산 전문가네. 그렇다면 난 창작, 비평, 감독 전문가가 되어야지'라는 식의 각성을 한 이들이 생겨났다. 결국, 그래야 앞으로 살아남으니. 자, 개봉 박두! 마침내 사람과 기계의 경계가 흐려지며, 짜릿한 위기감이 변화의 단초를 제공한다. 그리고 드디어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된다.

■ **해결방안:** 그 도전의 일환으로 이번 전시는 오늘날 더욱 요구되는 '사람됨의 가치'에 주목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문득 '대체 어떤 사람으로 한 세상 살아야 할까?'라는 각성의 소리, 피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살기보다는 잘 살고 싶고, 잘 살기보다는 더 잘 살고 싶다. 물론 기본적으로 '궁극의 행복'은 결국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나 대응 방식은 제각각이다. 누군가는 단순히 눈과 귀를 닫고 누군가는 우직하게 고군분투한다.

이와 관련한 나의 대표적인 '전략'과 '전술',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론적인 '전략'적 입장! 더 잘 살기 위한 '사람의 궁극적인 가치'란 바로 창의적이고 비평적인 '주체'로서 '의미' 만들기의 달인이자 사방으로 '지휘' 능력이 뛰어난 내 인생의 '감독'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려는 '고매한 의지'이다. 아마도 비슷하거나 다른 언어로 이미 많은 이들이 유사한 태도를 가슴에 품어왔으리라.

다음, 방법론적인 '전술'의 태도! 더 잘 살기 위한 '사람의 방편적인 요령'은 매사에 '음양법칙'에 입각하여 서로 간에 '기운생동'을 잘 조절하며 상생하는 '능숙한 기술'이다. 예를 들어 평상시 생각하거나 느낄 때에는 여러모로 '같음과 다름'의 '균형감'을 유지한다. 그러다 필요하면 둘 간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조절하는 절묘한 '융통성'을 발휘한다.

결국,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전략'과 유용한 '전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당면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예컨대, '김치찌개'는 '김치찌개'(궁극적인 가치)인데, 고향의 맛 김치찌개(음기), 혹은 색다른 맛 김치찌개(양기), 나름 다 좋다(기운생동). 그런데 오늘(방편적인 요령)은 뭐 먹지? 물론 때에 따라 슬기롭게 대응(가중치 조절)하자. 같을 땐 같고, 다를 땐 다른 게 제맛이다.

그렇다면 21 세기에 들어서며 드디어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상황이 과연 뭘까? 바로 그건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 인공지능의 등장이다. 아, 새로운 과제 도착! 혹은, 팀원이 새로 왔나? 여하튼, 앞으로 기계는 우리를 비추는 유용한 거울이다. 이를테면 기계를 보면 사람을 더 잘 안다. 그렇다면 여러모로 기계와 선을 긋거나 함께 하며 내 행복을 발견하자. 예컨대, 진정으로 우리가 잘 하는 게 뭘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왜 하고 싶은지,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기계를 보고 스스로 깨치거나 함께 대화하자. 그러다 보면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는 '마법 구슬'인 양, 별의별 상을 우리 마음의 스크린에 기계가 생생하게 영사(projection)해 줄 수도.

■ 기획의도: 이번 전시명은 '**잠재풍경(Latent Scape)**'이다. 이는 다양한 모양의 풍경에 잠재한 원형 구조의 근본 원리와 적용 실재를 모색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잠재풍경'은 아직 어떻게 자라날지 알 수 없어 마냥 설레는 생각의 '씨앗'이다. 앞으로 발현될 특성을 연쇄적이거나 산발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DNA 적인 확률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록된 '청사진'이다. 마침내 수학 고수가 되려면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해당 구조의 작동 원리를 내포한 '절대 공식'이다. 무엇이든 흥미롭게 연상하고 애정으로 다듬으며 호흡으로 생성하는 '잠재적 가능성(latent possibility)'이 층만한 'X 함수'다. 필요에 따라 바라는 대로 어떤 내용물도 유려하게 담아내는 넉넉한 '그릇'이다. 만들고 싶은 모양이 있으면 언제라도 다시 찍어내는 '판형틀'이다. 때때로 복잡한 세상에 매몰되어 길을 잃는 우리에게 나름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나침반'이다. 수많은 선택지에 결정을 미루며 불안할 때 다시금 본질에 충실하자며 좋은 말 듬뿍해주는 든직한 '멘토'다.形形色색 수많은 사연을 모으고 응축하며 추출한 원액으로 만든 몸에 좋은 '종합 비타민'이다.

참고로, 이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전문 용어인 '**잠재공간(latent space)**'에서 착안했다. 이는 유사한 정보를 집적하거나 압축하며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비유컨대, 농사를 잘 지으려면 계획이 알차고 토양이 비옥하며 재료가 풍성하고 경작에 능숙하며 매사에 진심이어야 한다. 혹은,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곧 일취월장, 두각을 나타낼 가수의 잠재성을 한눈에 알아보고 끈기 있게 그 능력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통해 마침내 보석을 제조하는 소속사의 신인 발굴 프로젝트로도 이해 가능하다.

애초에 기계는 사람을 모사하고 재현하며 학습했다. 따라서 이를 탐구하다 보면 도리어 사람 생각의 작동 과정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기계는 사람의 거울이다. 예컨대, 기술적으로 '잠재공간'의 작동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의 형상을 떠올리시오'라는 '언어의 이미지화(text to video)' 주문(input)을 받는다. 그러면 '인식계(encoder)'가 활성화된다. 즉, 해당 개념을 분리하고 파생적으로 기화(diffusion)하며 사방으로 수많은 추상 먼지(noise)를 퍼트린다. 그리고 '잠재공간(latent space)'이 활성화한다. 즉, 스스로 처리 가능한 범위로 먼지를 압축(compression)하고, 필요에 따라 고유의 입장(embedding)을 반영하며, 총체적으로 알고리즘(model)을 수행하는 다층적인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표출계(decoder)'가 활성화한다. 즉, 먼지를 통합하고 응축적으로 액화(infussion)하며 마침내 구상 덩어리(denoise)를 도출(output)한다.

그런데 세상은 변화무쌍하며 우리는 서로 다 다르다. 생물학적인 기질이나 환경적인 맥락, 혹은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시대정신에 따라 그야말로 반응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내가 떠올린 신의 모습과 네가 떠올린 신의 모습은 당연히 다르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떠올린 신의 모습도 그렇다. 구체적인 특정 작동의

결과물(output)로 생성된 형상(generative image)은 마치 다중우주(multi-model)의 수많은 무작위(random) 변주(seed)인 양, 서로 다른 조건식과 강도나 종류 등 여러 변수값으로 인해 서로 간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잠재풍경'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소위 우리를 '내 인생의 무림고수'로 탈바꿈하는 예술적인 '훈련장', 즉, 내 마음의 '도서관'이자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세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더욱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결괏값은 달라도 사람과 기계 모두 그 사고의 구조는 매한가지이다. 비유컨대, 소화기관의 '개별적인 모양'은 다 다르지만, '총체적인 작동원리'는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소화기관 전문의는 후자를 숙지하고 전자를 대하는 전문가이다. 그리고 마치 붕어빵 판형틀이 있으면 계속 이를 찍어낼 수 있듯이, 통상적으로는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이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현명하다. 결국,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호도되기보다는, 일종의 '유형학(typology)적 접근'으로서 전체를 아우르며 공통된 구조를 파악하는 '거시적인 조망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당장 어려우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처음에는 도무지 오리무중, 대책 없던 미지의 영역이 점차 선명해질 수도. 기왕이면 종종 여러 양태의 '잠재풍경'을 음미하며 이와 같이 한껏 우리 내면의 '심미안'을 고양하길 바란다.

■ 기획내용: 우리 마음계에서 인식은 곧 풍경이고 생각은 곧 세상이다. 이번 전시, '잠재풍경'은 여러 단계의 풍경을 다양한 양태로 보여주며 그 개념과 실재를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유컨대, 내 마음은 일종의 '잠재풍경'이다. 그리고 내 작품은 내 아이다. 마치 배아의 상태인 양, '생각의 씨앗'은 아직 구분이 어려운 알 수 없는 흔적 덩어리이다. 그러나 태아의 상태를 거쳐 단계 별로 성장하며 결과적으로는 애초의 계열 구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소 낯선 상반된 요소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구조로 진화하기도 한다.

내용적으로, 내가 주목하는 '잠재풍경'은 크게 세 개의 풍경으로 구분된다. 첫째, '무한한 우주'를 보여주는 '초월풍경! 이는 '너머를 음미한다'는 통찰과 관련된다. 예컨대, 내 '영상' 작품은 수많은 이미지를 이어 붙여 다중우주적인 무한함과 숭고함, 그리고 겸손함과 매혹의 감정을 야릇한 흐름으로 표현한다. 마치 '나 같은 나', 혹은 '나 아닌 나'가 수많은 우주에 존재하듯이, 지금 여기, '나라는 나'를 줄 세운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 이는 일종의 '제도 조망형'으로서 '이후 의식(post-consciousness)' 단계와 통한다.

둘째, '가상적 현실'을 보여주는 '구상풍경! 이는 '나는 특별하다'는 통찰과 관련된다. 예컨대, 내 '사진' 작품은 가상과 실재가 혼재된 미디어 시대, 매혹과 불안의 아이러니를 짜릿한 광경으로 표현한다. 마치 꿈이 현실이 되듯이, 어느 순간 비근한 일상은 매력적인 이상이 된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광경에 몰입할까? 이는 일종의 '환경 체험형'으로서 '유사 의식(pseudo-consciousness)' 단계와 통한다.

셋째, '근원적 꿈'을 보여주는 '추상풍경! 이는 '누구나 그렇다'는 통찰과 관련된다. 예컨대, 내 '회화' 작품은 아직 그 무엇이 되기 전에 마냥 모호한, 즉 막 발동이 걸리거나 이제 몇 단계 정도 진행된 초기 상태의 '잠재풍경'을 표현한다. 마치 꿈은 꿈일 때 설레듯이, 마음을 비우기에 마음껏 채운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뭘 연상할까? 이는 일종의 '기질 표출형'으로서 '이전 의식(pre-consciousness)' 단계와 통한다.

빈 캔버스는 또 다른 '잠재풍경'의 시작이다. 마치 여기저기 모래를 뿌린 후에 휘휘 이를 매만지면 어느새 모종의 풍경이 탄생하는 모래 아트(sand art)처럼, 빈 캔버스에 하나 둘 붓질을 쌓다 보면 애초에 흩어진 추상적인 먼지(noise)가 점차 구체적인 의도로 시각화(denoise)하는 묘한 마법을 경험한다. 나는 이와 같이 뭐든지 '마음먹기'에 따라 생생하게 체험하는 예술의 황홀한 맛을 한껏 스스로 즐기며 널리 함께 나누고 싶다.

■**표현방법:** 내 기획의 의도와 내용을 시각화 하고자, 이번 전시에서 조형적으로 내가 활용한 방법론은 크게 세 개의 미디어로 구분된다. 첫째, '영상'은 '사진 나열 프로젝트(Stop Motion project)'이다. 통상적인 작업 과정, 다음과 같다. 먼저 내 '사진' 혹은 '회화'의 원본 이미지를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파생하며 양산한다. 그리고는 순서대로 선택된 이미지를 나열식으로 정렬하여 하나의 동영상으로 편집한다. 그리고 나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양이 야릇하게 연결되며 생생한 꿈틀거림이 표현된다.

둘째, '사진'은 '도시 프로젝트(Cityscape project)'이다. 통상적인 작업 과정, 다음과 같다. 먼저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진을 찍어 저장한다. 그리고는 의도에 따라 여러 사진을 선택하고 재구성하여 결과적으로 그림직한 모양을 연출한다. 그리고 나면 실재와 가상이 혼재된 미디어 시대, 매혹과 불안의 자화상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기존 작업인 '포토샵 보조 작업(Photoshop-based project)', 기존 작업의 연장인 '인공지능 보조 작업(AI-based project)', 그리고 신규 작업인 '인공지능 주도 작업(AI-led project)'이 포함된다.

셋째, '회화'는 '화획(畵劃) 프로젝트(Painting Strokes)'이다. 통상적인 작업 과정, 다음과 같다. 먼저 찰나의 순간에 조절하기 어려운 분출적인 붓질을 감행한다. 그리고는 긴 시간 동안 이를 수습하고자 다듬고 또 다듬으며 두텁게 층을 쌓아 올린다. 그러면서 마치 '돈오점수(頓悟漸修)'의 삶의 태도로 '일획(一劃)이 만획(萬劃)이요, 만획이 일획'이라는 우주적인 작동의 기운을 온몸과 마음으로 체감한다. 즉, 다양한 붓질을 부분부분 모아가며 점차적으로 전체를 조직하다 보면 마치 운동으로 다져진 뚜렷한 근육선이 입체적으로 탄탄한 양, 마냥 그 흔적이 생생하다.

그런데 마치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듯이, 점층적인 진행 단계를 거치며 애초의 '잠재풍경'은 결국 특성화, 구체화되며 자신의 본 모습을 발현하게 마련이다. 바로 이게 내 '영상', '사진', '회화'를 제작하는 방법론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이를테면 세 개의 미디어 모두 조금씩 부분을 쌓아가며 점차적으로 전체를 조직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기에 최종적인 모양은 비로소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결국, 우리 인생사가 그러하듯이, 막상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애초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경우, 다반사이다. 물론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자라나는 나이대별로 아이의 인생, 다 소중하다.

■**사적동기:** 그런데 갑자기 드는 의문!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작업에 심취할까? 이번 전시작을 제작하며 때때로 '원인론적 동기'로 느꼈던 대표적인 다섯 개의 감정, 다음과 같다. 첫째, '내가 하는 일이 맞겠지?'라는 의심! 마치 못하는 건 열심히 해야 2등 밖에 못하고, 잘 하는 건 열심히 하면 1등 할 수 있듯이, 기계가 잘 하는 건 기계가, 그리고 사람이 잘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게 보통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가장 잘 하는 일을 나는 하고 있을까? 우선은 그렇다고 믿고 싶다. 물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때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래, 너 자신을 알아.

둘째, '내가 할 일이 없어지지 않겠지?'라는 불안!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기계, 이제는 없으면 생활이나 업무 자체가 안 된다. 그런데 끊임없이 기계의 성능은 발전하며, 게다가 가속도가 붙는다. 자칫하면 도태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애초에 기계는 사람이 아니지만, 태생적으로 모방하고 재현하는 훈련의 대상이 사람이었기에 이제는 비슷한 점도 많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니 종종 나보다 객관적으로 내 심신을 더 잘 파악하는 것만 같다. 그러나 기계와 사람은 정량의 음식을 나눠먹는 단순한 대체적 관계가 아니다. 당장 불과 얼마 전까지도 예측하지 못했던 직종이 지금 활개를 치듯이, 언제나 할 일은 많다. 물론 끊임없이 시대의 추이를 파악하며 새로운 일을 모색해야 하지만. 그래, 다 잘 될 거야.

셋째, '평생 기술자로 남지 않겠지?'라는 좌절! 이제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AI image generation)' 기술의 도움으로 기존의 내 이미지는 끊임없는 변주가 가능하다. 따라서 마치 잘 차린 뷔페처럼 무한한 선택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게다가, 다재다능한 요리사로 복적이다. 그렇다면 마치 내가 감독이고 인공지능이 배우인 양, 조금씩 다르게 연기된 여러 장면 중에 가장 내 의도에 부합하는 장면을 선별하여 편집할 수 있다. 혹은, 예기치 않은 배우의 즉흥연기(ad-lib)에 탁 무릎을 치며 기꺼이 이를 반영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은 전통적으로 한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유일무이한 '원본성(originality)'의 개념을 변모시킨다. 이를테면 특정 배우는 여러 영화에 출연한다. 그러나 나만의 영화에서 그 배우에게 부여된 고유의 맥락은 그야말로 내 거다. 결국, 앞으로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보다 전체를 조망하고 조율하는 기획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 총괄해라.

넷째,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 주겠지?'라는 공포! 실제로 진품과 가품은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며, 여기에는 해당 작가의 보증이 그 위력을 발휘한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의 이상적인 개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작가의 서명에서 암시되듯이, 태생이 작가는 NFT 다. 자신의 아우라(aura)를 흔적(blockchain)으로 남기며 스스로 가치(token)를 창출(minting)하기에. 그런데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이 빠른 속도로 수많은 이미지를 생산하며 앞으로는 크게 한 작가의 진품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언제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유효하다. 게다가, 최소한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개인주의 환상'이 작동하는 한 아직까지도 '소위 '그분(작가)'의 선택'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예컨대, 다중우주에서 나는 '수많은 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내 코가 석자라고, 내 볼을 꼬집으면 당장 아픈 당사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렇다면 '전지적 1 인칭 시점'으로는 어쨌든 내가 '원작'이다. 결국, 이론적으로 나는 뭐든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재적으로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로 내 우주에서 당연한 현실이고 그래서 소중한다. 당장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내 '사진'과 '회화' 작업은 수많은 다른 후보를 제치고 결과적으로 선택되어 지금 여기 유한하게 존재하는, 그야말로 만질 수 있는 그윽한 '물질 덩어리'이다. 그래서 의미 있다. 그래, 소장해라.

다섯째, '다 재미 없어지지 않겠지?'라는 우울! 모든 걸 이루고 나면, 즉 앞으로 기대하는 미래가치가 바닥을 보이면 어느새 지루함이 몰려온다. 여기저기 희망의 싹을 피우는 설렘이 없으니 도무지 삶에 의욕이 나질 않는다. 비유컨대, 그래서 난 아이(작품)를 좋아한다. 앞으로 그 아이의 성장을 생각하면 다시금 창작자의 자의식이 샘솟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내 세 명의 작은 아이, '영상이'와 '사진이'와 '그림이'가 함께 모여 '우주와 현실과 꿈'을 보여주며 풍요로운 면적 사고를 형성하는 '삼각형 편대'로 활동을 개시한다. 인공지능의 시대, 부디 그들이 공유하는 예술담론을 입체화, 복수화, 다층화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며 스스로 고유한 내공을 키우길. 그리고 고양된 '예술의 마법'으로 우리네 삶이 몹시도 풍요롭길. 그래, 즐겨라.

■공적의도: 이번 전시작을 선보이며 '목적론적 효과'로 도출 가능한 대표적인 네 개의 의의,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측면! **역동적으로 세상이 밝아진다.** 예컨대, 원수보다는 친구가 좋다. 그러니 친구 하자. 이를테면 '자연지능(Natural Intelligence, NI)'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자연의식(Natural Consciousness, NC)'과 '인공의식(Artificial Cconsciousness, AC)', 그리고 '자연노동(Natural Labor, NL)'과 '인공노동(Artificial Labor, AL)'은 각자 잘 하는 일을 하며 필요에 따라 서로 도와주는 소중한 동반자다. 때로는 한 몸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전화번호? 핸드폰이 외운다. 몸짱? 내가 된다.

둘째, 개인적 측면! **사람의 자존감이 향상된다.** 어쩌면 기술적으로는 환상일지도 모르는 '나는 나'라는 식의 '자의식 과잉'은 당장 사람의 특권이다. 그렇다면 이를 오류로서 제거하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기회로서 특별한 '사람됨의 가치'를 즐기는 기회로 활용하자. 예컨대, 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다. 이를테면 취향이나 욕구, 그리고

이를 추구하며 피어나는 '뿌듯한 만족감'의 향기는 사람을 사람으로 구분 짓는 특별한 징표(index)다. 종종 사람은 뛰어난 가성비와 믿음직한 정수보다는 황당한 모험과 낯선 변수로 판세를 돌리는 데 보다 능하다. 물론 이는 대책 없는 자의식 탓이 크다. 한편으로, 아직 '인공의식'은 갈 길이 멀다. 그렇다면 코 끝 찡한 감동? 그거 아무나 못한다. 잘난 채? 내가 한다.

셋째, 예술적 측면! **중요로운 예술이 만개한다.** 전혀 예술이 아닌 재료를 완전 예술로 승화시키는 '예술의 마법'은 사람이 달성 가능한 가장 고차원의 단계이다. 물론 예술이 예술이기 위해서는 그게 예술이라는 소위 우기기와 굳히기의 '의미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람 우위'인 우리 세상, 그 주체는 단연 사람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 해를 보고는 슬피 운다며 펄펄 따라 온다. 다른 사람, 방긋 웃는다며 자기도 미소 짓는다. 그들의 예술적인 표현, 물론 예술이다. 그런데 원래의 해, 그 자체는 예술이 아니다. 사람이 해야 비로소 예술이 되니까. 기계도 마찬가지이다. 이를테면 만약에 얼핏 볼 때 겉모습이 사람과 똑같은 기계에 완전히 사람이 속을지라도 결국에는 알고 보면 그저 본질은 인형일 뿐, 원래부터 사람이었던 건 결코 아니다. 그러나 마치 양자역학에서 시선이 존재를 생성하듯이, 혹은 마침내 피노키오가 사람으로 거듭나듯이, 예술적인 상상력으로 사람이 주도하면 사방이 예술 천지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창작한 예술? 내가 잘 활용하면 대박. 내가 창작한 예술? 그냥 대박.

넷째, 철학적 측면! **입체적으로 자신을 돌아본다.** 통렬한 반성과 향수 어린 회고는 역시 사람이 전문가이다. 예컨대, 때에 따라 나는 남과 다르거나 같다. 우선, 개별적인 모양은 다 다르다는 '다름의 법칙!' 이 우주에서 나는 착하다. 그런데 저 우주에서는 나쁘다. 다음, 작동원리는 다 마찬가지라는 '같음의 법칙!' 모든 우주를 1/N 로 평균 내면 결과적으로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균에 수렴한다. 결국, 거시적인 '다중우주' 세계관으로는 잘해도 잘한 게 아니고 못해도 못한 게 아니다. 어차피 누구나 그렇듯이 차근차근 가능한 모든 변수를 살아볼 뿐. 그러니 겸손해라. 사람 사는 사회, 알고 보면 그게 그거다. 결국 '뭐 있어? 다 그렇지'라는 식의 비평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통찰에 마음을 다잡는다. 그렇다면 우주 여행하는 인공지능? 숙식 우주선. 여기 탑승한 나? 들뜬 여행객.

■ 요약정리: 이번 전시, '잠재풍경'은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비평적으로 우리를 더 잘 이해하며, 창의적으로 세상을 더 잘 활용하고, 나아가 마음껏 예술하며 내 삶을 더 잘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다. 이를테면 시대가 변한다고 사람의 본질이 바뀌진 않는다. 물론 '전술'의 융통성을 발휘할 순 있겠지만, 분명한 건, '전략'으로서 진정으로 '사람됨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 풍경'에서 그동안 요원했던 '궁극의 행복'을 비로소 발견한다는 사실이다. 아, 내가 다구나!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주변의 '잠재풍경'에 대한 '심미안'을 키워 지속적으로 내 안의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발굴하자. 그리고 예술적으로 이를 표현하고, 나아가 예술담론으로 음미하며 공유하자. 그러다 보면 드디어 스스로 '뿌듯한 만족감'을 누리며 주변에 '흥미로운 자극'을 공유하는 나 자신에 감탄할 수도. 어쩌면 그걸로 충분하다. 부디 내 작품이 여기저기 잠복기의 '잠재풍경'을 예술적으로 활성화하는 생산적인 기폭제가 되기를.

오늘도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내 마음속 '잠재풍경'을 지긋이 바라본다. 그야말로 '완전 새로운 하루(Brand New Day)'의 시작이다. 그리고 선택지는 상상하기 나름이다. 그저 그러고 싶은 '생각의 씨앗'으로 미래 가치의 희망에 가득 찬 '순수한 영혼'이 되거나, 혹은 '연상의 마법'으로 사차원의 선형적인 시간 축을 이리저리 편집하는 '시간여행자'가 되거나, 아니면 '다중우주'를 넘나들며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신통한 도사'가 되는 등, 언제나 우리네 세상에 할 일은 많다. 그리고 결정은 내가 한다. 그러고 보니 나 좀 바쁘네.